



최종원(서울신대)

## 1. 서론

지금까지 구약학의 소예언서 연구는 형성사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다. 이에 아모스서의 원본문이 무엇이었으며, 그 본문들이 각각 어떻게 확장되었는지를 연구하는데 주된 관심을 보여 왔다.<sup>1)</sup> 이런 점에서 이 방민족에 대한 신탁본문들과 아모스의 환상본문들은 주된 대상이었고, 이러한 본문들을 중심으로 주제와 용어 사용을 통하여 나타난 차이점들을 발견하면서 아모스서의 전승들을 연구해왔다.<sup>2)</sup> 그러나 최근 이러

---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 2015S1A5B5A07038793).

1) O. Loretz, "Die Entstehung des Amos-Buches", *Ugarit-Forschungen* 24 (1992), 184f.

2) A. Scharf, *Die Entstehung des Zwölfprophetenbuches. Neubearbeitungen von Amos im Rahmen*

한 연구의 관점은 아모스 전체 구성사적인 부분으로 전이되었고, 더불어 12 소예언서 전체와 함께 연구되고 있다. 이는 아모스서가 가지는 편집과 구성사적 문제는 개별 단위의 문제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었고, 12 소예언서의 편찬자 또는 편찬 그룹을 통하여 새롭게 정리되었을 것으로 추측하게 되었다.<sup>3)</sup>

본 연구는 이러한 아모스서의 최근 연구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아직 아모스서 마지막 부분인 8-9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역사적 시대를 규정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저울 역할을 했던 벨하우젠(J. Wellhausen)의 아모스서 연구는 최근 새롭게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었다.<sup>4)</sup> 그가 연구한 아모스 9장의 다윗에 대한 삽입구 제안은 하나의 편집의 흔적으로만 볼 수 없게 되었다. “피와 철 대신에 장미와 라벤더 향”(Rosen und Lavendel statt Blut und Eisen)이라는 벨하우젠의 아모스 9장에 대한 해석은 아모스서 전체에 대한 새로운 규명을 통해서 새롭게 해석될 필요가 있게 되었다.<sup>5)</sup>

---

*schriftübergreifender Redaktionsprozesse* (BZAW 260; Berlin/New York: Walter de Gruyter, 1998), 50-100; J. Jeremias, “Zur Entstehung der Völkersprüche im Amosbuch”, ders.(ed.), *Hosea und Amos. Studien zu den Anfängen des Dodekaprophetens* (FAT 13; Tübingen, 1996), 172-182; J. Wöhrle, *Die frühen Sammlungen des Zwölfprophetenbuches. Entstehung und Komposition* (BZAW 360; Berlin/New York: Walter de Gruyter, 2006), 93-107; T. S. Hadjiev, *The Composition and Redaction of the Book of Amos* (BZAW 393; Berlin/New York: Walter de Gruyter, 2009), 41-95. 한국의 구약학계에서도 여전히 이러한 연구는 지속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참고. 이희학, “북왕국 멸망의 사회적 원인들과 예언자 아모스의 심판 선포”, 『구약논단』 제14권 2호 (2008년 6월), 29-48; 우택주, 「새로운 예언서 개론」, (대전: 침례신학대학교, 2009), 177-191; 한규승, “‘토라적 공공성’의 관점에서 다시 보는 아모스 선지자의 공공담론: 아모스 2장 6-7절의 재해석”, 『구약논단』 제22권 1호 (2016년 3월), 62-101. 이 글들은 여전히 아모스의 주제와 신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주전 8세기라는 통상적인 시대적 기준을 따르고 있다. 그 누구도 왜 주전 8세기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

- 3) J. Wöhrle, *Der Abschluss des Zwölfprophetenbuches. Buchübergreifende Redaktionsprozesse in den späten Sammlungen* (BZAW 389; Berlin/New York: Walter de Gruyter, 2008).
- 4) H. Clifford, “Amos in Wellhausen’s Prolegomena”, ders., *Aspects of Amos. Exegesis and Interpretation* (LHB/OTS 536; New York: T & T Clark, 2011), 141-156.
- 5) J. Wellhausen, *Die kleinen Propheten* (Berlin: Verlag J. Guttentag, <sup>4</sup>1963), 96.

## 2. 연구사 및 연구목적

아모스서에 대한 새로운 연구 방향은 1878년 벨하우젠의 연구를 기점으로 시작한다고 볼 수 있다.<sup>6)</sup> 그의 논지는 종교사학적인 입장에서 ‘법이 예언보다 앞서지 않다’는 기본 명제를 밝히면서 당시 혼잡해 있던 문서설을 종합하게 되었고, 그 이론을 정립하는데 있어서 그는 아모스서의 역할을 통하여 도움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 5가지 주제로 나눌 수 있다: 1) 예배의 자리 2) 희생 제사 3) 신성한 축제들 4)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5) 성직자들의 자질. 이 주제들을 통해서 그는 포로기 이전과 포로기 이후의 본문을 결정할 수 있었다.<sup>7)</sup>

벨하우젠의 연구는 이어 볼프(H. W. Wolff)에게로 이어졌다.<sup>8)</sup> 볼프는 아모스서의 전체 구조를 파악하면서, 아모스 3-6장을 가장 오래된 본문으로 보았다. 그것은 3-6장에서는 1-2장과 7-9장에 나타나는 수확이라는 심판의 상징이 나타나지 않는다는데 근거하여 있고, 또한 사마리아의 죄악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문학적 기법 역시 차이를 보여준다. 그래서 1-2장과 7-9장이 후에 첨가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예레미야스(J. Jeremias)는 그 확정을 반대로 보았는데,<sup>9)</sup> 먼저 아모스와 호세아와의 관련성에 집중하여 연구했고, 이 두 본문들은 매우 유사한 내용과 문학적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이 대표적인 두 인물을 통하여 아모스는 적어도 세 부분(1-2; 3-6;

---

6) J. Wellhausen, *Geschichte Israels: In zwei Bänden. Erster Band* (Berlin: G. Reimer, 1878); *Prolegomena zur Geschichte Israels* (Berlin: G. Reimer, 2<sup>nd</sup> edn, 1883); *Prolegomena to the History of Israel* (trans. J. Sutherland Black, and A. Menzies; Edinburgh: A & C Black, 1885); *Prolegomena to the History of Israel* (repr., with a reprint of the article 'Israel' from the Encyclopaedia Britannica; New York: Orbis Books, 1957).

7) J. Wellhausen, *윗글*.

8) H. W. Wolff, *Dodekapropheten 2: Joel und Amos* (BKAT XIV/2;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85).

9) J. Jeremias, *Der Prophet Amos* (ATD 24/2;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5).

7-9)으로 구분 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과연 1-2장과 7-9장은 3-6장과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를 묻는 것이 최근 아모스 연구의 흐름이다. 이러한 흐름은 아모스서의 해석을 12 소예언서 안에서 해결하려는 연구 경향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모스 전체의 마지막 형성에 관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아모스서의 원본문과 이차적 본문의 구분은 아모스 시대의 것으로 돌리는 경향 때문에 발생한 연구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아모스의 말씀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아모스의 전승이 지혜자의 말과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sup>10)</sup>, 이러한 이유로 아모스의 소위 원본문이 아닌 이차적 본문들을 구분하는 방법으로 신명기사가적 사고가 반영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해석되었다.<sup>11)</sup> 이러한 움직임은 아모스서의 발생과 구성이라는 폭넓은 연구의 테두리 속에서 논의되었고,<sup>12)</sup> 점차적으로 아모스서가 문학적 성장과정으로 지금의 본문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sup>13)</sup> 이러한 문학적인 성장 과정은 1-2장, 3-6장 그리고 7-9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나, 여기서 의미 있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아모스서의 표제어가 갖는 중요성이다.

뵘어를(J. Wöhrle)의 관점으로 볼 때, 아모스서에서 구성사적으로 1장 1-2절의 예언자적인 말 형태는 3장 1절과 4장 1절 그리고 5장 1절과 연관이 있으며, 1장 2절은 아모스 전체의 주제를 나타내는 절로 본다.<sup>14)</sup>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아모스서가 다양한 시기에 다양한 주제로

---

10) 최근 아모스의 지혜 전승에 대한 연구는 다음을 참고하라. Young-Ho Lee, *Einflüsse der Weisheit auf Worte der Propheten des 8. Jahrhunderts. -Amos und Jesaja-*, (Dissertation bei Bonn Uni., 2005).

11) W. H. Schmidt, "Die deuteronomistische Redaktion des Amosbuches. Zu den theologischen Unterschieden zwischen den Propheten und seinen Sammlern", *Zeitschrift für die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77 (1965), 168-193.

12) O. Loretz, *윳글*, 184-186.

13) K. Koch, *Amos: Untersucht mit den Methoden einer strukturalen Formgeschichte*. (Teil 1) (AOAT 30;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76), 104-126.

14) J. Wöhrle, *Die frühen Sammlungen des Zwölfprophetenbuches. Entstehung und Komposition*

기록되었다기보다는 어떤 시기에 한 편찬자(저자 또는 그룹)에 의하여 뚜렷한 메시지를 전할 목적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러한 연구가 주는 의미는 1장 2절과 9장 5-6절과의 관련성을 창조신학적인 개념으로 보면서 아모스서 전체를 통시적이면서 동시에 공시적으로 접근하려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는 데에 있다.<sup>15)</sup> 나아가 샬트(A. Schart)는 이 부분을 법과 계약파기의 의미에서 구성사적으로 연결하기도 한다.<sup>16)</sup> 이런 점에서 아모스서의 서문(1:1-2)은 열방신탁(1-2장)과 환상 본문(9장)과 연결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것이 본 연구에서 중요하게 관찰되고 연구될 것이다.

결국 아모스서의 전반부와 달리, 아모스의 환상 본문과 3-6장과 의 본문이 연결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 두 그룹의 연결은 적어도 야곱 전승이라는 부분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분명히 야곱은 에서와의 형제라는 점에서 주목해 볼 수 있는데, 이방민족에 대한 신탁 부분에서 일반적으로 에돔 신탁은 이차적으로 취급되지만, 야곱 전승과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새롭게 재해석 될 수 있다.<sup>17)</sup> 특히 야곱 전승이 아모스 4장에서 편찬자에 의하여 계약 파기의 내용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 나타난다. 이 전승은 아모스서의 후반부를 이루고 있는 8장 4-7절에서 다시 언급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던져준다. 그 본문은 내용상 아모스 2장 6-8절을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야곱이라는 이름은 아모스 3장 13절, 6장 8절 그리고 7장 2, 5절에서 북왕국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야곱 전승이라는 문학적 테두리가 아모스서의 전반적인 흐름을

(BZAW 360; Berlin/New York: Walter de Gruyter, 2006), 91-92, 123.

15) E. Zenger, "Das Zwölfprophetenbuch", ders.(ed.), *Einleitung in das Alte Testament* (Stuttgart: W. Kohlhammer, 2008), 540.

16) A. Schart, *Die Entstehung des Zwölfprophetenbuches. Neubearbeitungen von Amos im Rahmen schriftübergreifender Redaktionsprozesse*(BZAW 260; Berlin/New York: Walter de Gruyter, 1998), 55.

17) J. Wöhrle, *윳글* (2006), 105.

주도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하다.

아모스서의 마지막 부분을 형성하는 8장 4-14절은 이사야 1장 13-17절과 내용상 유사한 점으로 기록되어 비교할 만하다. 로트졸(D. U. Rottzoll)은 8장 4-6절을 아모스의 이차적 본문으로 주장한다.<sup>18)</sup> 그룹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은 문학적으로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 내용상 안식일 계명과 제의 비판에 대한 본문은 이사야 1장과 미가서 6장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두 본문을 면밀히 관찰한 뢰터스베어덴(U. Rüterswörden)은 구조적 개념으로 접근하는 동시에 계약파기의 개념으로 이 본문들이 매우 유사한 내용으로 나열되어 있음을 발견했다.<sup>19)</sup> 그의 연구를 통해서 아모스 8장 4-15절을 새롭게 재구성해 볼 수 있다. 그것은 계약 파기라는 개념으로 아모스 8장 4절 이하의 본문이 아모스 9장 1-4절을 제외한 아모스의 환상 본문들을 전제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sup>20)</sup>

그의 제자인 그레쯔(S. Grätz) 역시 아모스 연구에서 신명기사가적 전통의 흔적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는 아모스 4장이 계약 전통으로 보존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한다.<sup>21)</sup> 다만 그의 계약 전통은 편집사적인 측면에서 포로기 이전의 편집자에 의하여 고대 포로기 이전의 전통을 이어받고 있다는 전통사적 관점과 편집사적 관점을 동시에 연구하면서 예언서에 등장하는 포로기 이전의 예언자들의 메시지에 복서 썬어의 계약 전통과 관련된 사고가 나타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재확인 해주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아모스 9장의 연구는 매우 흥미롭다. 이미 이 본문은 아모스 1장 2절

---

18) D. U. Rottzoll, *Studien zur Redaktion und Komposition des Amosbuches* (BZAW 243; Berlin/New York, 1996), 258.

19) U. Rüterswörden, "Bundestheologie ohne  $\text{ברית}$ ", *ZAR* 4 (1998), 93-94.

20) J. Wöhrle, *뵘클* (2006), 108.

21) S. Grätz, *Der strafende Wettergott. Erwägungen zur Traditionsgeschichte des Adad-Fluchs im Alten Orient und im Alten Testament* (BBB 114; Bodenheim, 1998), 252ff.

과 연관이 있으며, 9장 7절의 애굽에서의 해방 주제는 아모스 2장 10절과 3장 1절과 관련이 있다. 9장 8-10절은 신명기사가의 사고에서 아모스 2장 11-12절과 7장 10-17절 그리고 8장 11-12절과 관련을 맺고 있음은 분명하다.<sup>22)</sup> 특히 9장 11-15절은 신학적인 희망을 주는 구원으로 결론을 맺고 있으며, 이것이 벨하우젠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주제로 선택되었다.<sup>23)</sup> 구성사적인 측면으로 볼 때, 아모스 9장 11-15절은 8장 11-14절과 교차 배열적으로 잘 구성되어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이 본문을 하디브(T. S. Hadjiev)는 포로기 본문으로 규정하면서 요엘서 4장 14절과 비교 연구하였는데, 그는 아모스서의 끝맺는 말이 요엘서의 묵시적 내용과 유사하다는 점을 발견하게 되었다.<sup>24)</sup> 또한 이 본문에 대하여 레빈(C. Levin)의 입장은 9장 14절이 5장 11절과 연관이 있으며, 이 본문이 예레미야 29-33장을 차용하고 있다고 그는 주장하고 있다.<sup>25)</sup> 티(W. Thiel)도 29장으로 시작된 구원 선포에 대한 내용이 33장까지 이르고 있으며, 34장에서 나타나는 어휘 사용과도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한다.<sup>26)</sup> 특히 30-31장을 통해서 다윗 왕조의 분위기는 더 이상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 수집물은 유대적인 분위기가 더 강조되고 있으므로, 그는 시대적으로 적어도 신명기사가 이후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sup>27)</sup>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서 아모스 8-9장은 계약신학이라는 관점에서 재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본문은 매우 정교하게 문

22) J. Wöhrle, *윳글* (2006), 134-135.

23) J. Wellhausen, *Die kleinen Propheten* (Berlin: Verlag J. Guttentag, 41963), 96.

24) T. S. Hadjiev, *The Composition and Redaction of the Book of Amos* (BZAW 393; Berlin/New York: Walter de Gruyter, 2009), 121-122.

25) C. Levin, "Das Amosbuch der Anawim", *Zeitschrift für Theologie und Kirche* 94 (1997), 284-285.

26) W. Thiel, *Die deuteronomistische Redaktion von Jeremia 26-45* (WMANT 52;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81), 19.

27) W. Thiel, *윳글*, 21.

학적으로 통일성을 이루며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 본문의 주제들은 아모스 전체 본문들과 매우 긴밀하게 관련을 맺고 있다. 야곱 전승을 통하여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 파기라는 계약 신학적 접근을 통해서 새롭게 재해석이 가능하다. 아모스의 이차적 본문을 원본문에서 가려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구조가 지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러한 연구는 분명히 12 소예언서 위치에서 함께 작업을 할 때 좋은 결과를 보여줄 수 있다고 본다.<sup>28)</sup>

이런 점에서 아모스 9장은 8장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으며, 신학적인 주제 면에서 고대 근동의 조약 전통 위에서 있으면서 동시에 시기적으로 후기 신명기사가적 관점을 보여주고 있음이 주요 관심사로 소개될 수 있다. 물론 아모스 8장은 문학비평적 관점에서 적어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1-3절, 4-10절, 11-14절). 이러한 분석에 의해서 아모스 9장은 적어도 아모스 8장 11-14절과 관련을 맺고 있으며, 따라서 본 연구는 아모스 8장 11절-9장 15절이 구성사적인 면에서 계약 전통의 기본적인 신학적 이해를 근거로 하고 있고, 동시에 아모스서 전체의 형성과 구성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줄 것이다.

### 3. 아모스 8-9장의 문학적 및 구성사적 입장

#### 1) 아모스 8장 4-14절의 문학적인 관점

아모스 8장은 적어도 3부분으로 문학적인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 1-3절, 4-10절, 11-14절. 1-3절은 아모스 7장과 연계되어 있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환상본문이며, 4-10절은 적어도 일차적인 아모스 자체의 편집을 유추할 수 있는 흔적이 있고, 아모스 2장 6-8절과

---

28) 연구 범위와 지면의 한계로 12 소예언서와의 관련성은 다음 논문을 통하여 논하고자 한다.

13-16절의 내용과 유사한 점을 보여주며, 11-14절은 사회적이거나 제의적인 비평이 아닌 말씀의 불순중에 대한 해석으로 나타나는 사마리아의 결과를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적어도 아모스 8장은 세 부분으로 문학적인 내용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필자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세 번째 부분인 아모스 8장 11절 이후부터 9장에 이어지는 문학적인 통일성과 그 구성이다.

아모스 8장에서 아모스 9장과의 연결성을 보여주는 부분은 11-14절이다. 이는 아모스 최종 구성자의 의도가 보여지는 매우 특별한 신학적인 구조로 보여진다. 먼저 아모스 8장 4-14절의 문학적 분석은 교차대구조 형성되어 있다. 4-6절은 사회 비판적인 언급으로 구성되어 있고 2장 6-8절과 내용상 유사하다. 11-14절은 제의 비판적인 내용을 구성되어 있다. 7절 전반부는 야곱을 향한 야웨의 저주보도로 구성되어 있고, 이 야웨의 말은 9-10절에서 계속 이어지면서 동시에 아모스 5장 18-20절을 반영하고 있다. 이 본문에서 8절은 가장 중심에 위치하여 있으며 수사학적인 질문의 형태로 야웨를 잊지 말라는 결과에 대한 재판과 관련을 맺고 있다. 이러한 본문의 문학적인 구조를 다음과 같이 그려볼 수 있다:

A 8:4-6 사회 비판 (암 2:6-8 비교.)

B 8:7 야곱의 영광과 심판 보도

C 8:8 자연 재해

B' 8:9-10 심판 보도

A' 8:11-14 사마리아를 향한 제의 비판

이 구조에서 보듯이, 야곱의 심판 메시지는 사회비판과 제의비판이 그 원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 심판의 대상은 야곱의 가문이며 또한 북왕국 이스라엘로 묘사되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본문은 특별히 'A.

8:4-6 사회 비판'의 본문이 아모스 2장 6-8절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며, 또한 아모스 2장 6절 이하의 본문은 이방민족들과 비교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그 구성이 편집사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인 에돔과 두로 비판이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비판과 관련을 맺고 있다는데 있고, 이러한 주장은 유다의 비판 본문을 제외한 나머지 본문들이 서로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증명해 준다.<sup>29)</sup> 8장의 야곱은 북왕국 이스라엘로 비유되고 있는데, 이러한 야곱 전승은 아모스 1장 2절-2장 16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방 국가 신탁의 본문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 그 관계를 연결시키는 주제는 바로 '형제로서의 속성'(암 1:9-10)이며, 이러한 주제는 신명기적 관점(신 23:8)에서 비롯되고 있다. 에서와 야곱은 이미 창세기25장에서 민족의 조상으로서 한 형제로 소개되고 있고, 민수기 20장 14절 역시 이러한 주제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당신의 형제 이스라엘"). 이는 구성사적으로 볼 때, 분명히 아모스 환상의 첫째와 둘째의 상황(암 7:1-6)과 관련성이 매우 깊은 것으로 살펴볼 수 있다.<sup>30)</sup>

그러므로 이 구조가 주는 전체적인 주제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며 이는 사회적이며 제의적인 비판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이 본문에는 전혀 회복도 새로운 희망의 약속도 주어지지 않는다. 8절의 '애통'은 10절의 '애통'으로 이어지며 결국 이스라엘의 장송곡으로서 7절의 '야곱의 영광'은 더 이상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11-14

29) 지금까지 열방 신탁(1:3-2:16)은 문학적으로 편집되고 성장되었다고 주장되어왔다. 이러한 견해는 슈미트(W. H. Schmidt)에 의해서 주장되었는데, 그의 주장은 편집사적으로 두로와 시돈의 형태가 유다 심판 본문과 매우 유사하며 이에 대한 근거가 2장 10-12절에 있다고 한다.(W. H. Schmidt, *위글*, 174-183) 오히려 하디브는 열방신탁이 정치적인 상황에 알맞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 집중하면서, 유다 심판을 제외한 나머지 본문의 통일성을 주장한다. 그는 '형제의 언약'을 위배한 것이 두로의 죄목에 무게를 두면서, 이러한 사고가 신명기 23장 8절에 있다고 주장한다.(T. S. Hadjiev, *위글*, 46.). 즉 형제란 에돔의 조상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아모스 8장 11절 이전의 야곱의 이미지와 매우 일치한다. 또 다른 한 가지 중요한 관심은 유다를 제외한 열방신탁의 중요성이 각 나라의 죄목에 있는데, 이는 대부분 군사적이며 정치적인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근거가 된다. 이것은 유다의 종교적이며 윤리적인 관심과 거리가 멀다.

30) J. Jeremia, "Zur Entstehung der Völkersprüche im Amosbuch", 157-171.

절이 아모스 9장과 연결될 때,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은 아모스의 신학적 입장뿐만이 아니라 12 소예언서의 구성과 연결될 수 있는 근거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sup>31)</sup>

## 2) 구성사적 견지에서 아모스의 '형제애로서의 속성'

아모스 1장 9-10절에 나타나고 있는 '형제의 언약'은 분명 '형제로서의 속성'이라는 주제로 재해석 될 수 있다. 이 주제가 두로뿐만 아니라 에돔 신탁(1:11-12)에서도 가장 중심된 내용이다(11b):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여기서 우리는 에돔 신탁이 다른 이방 신탁 본문의 첨가 또는 이차적인 본문으로 볼 수 있는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 경우 에돔 신탁의 '형제로서의 속성'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아모스 환상(7:1-3,4-6)에서 소개하는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라는 사고와 연결된다. 분명히 이 아모스 환상 본문에서 야곱의 역할이 어떠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이에 부르지만(W. Brueggemann)의 구성사적인 형식과 관련한 주장은 중요하다:

“에서/에돔 전승들의 문맥을 통하여 야곱 언급(7:2,5)을 이해하는 이 방법은 아마도 아모스 그 자신에게로 귀속되는 주전 8세기의 이스라엘-에돔 족속으로 연결되어 질 수 있다. 추가적으로 에돔 신탁(i 11f.)에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위에서 군림하는 주인(i 6, 9)으로서 언급되고 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언급은 ii 1에 있다. 거기서 에돔은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야웨의 특별한 보호 아래 있는 존재로서 발탁 되었다.<sup>32)</sup>

31) 다음을 참고하라. J. Wöhrle, *윗글* (2006).

32) "W. Brueggemann, "Amos' Intercessory Formula", D. E. Orton(ed.), *Prophecy in the Hebrew Bible. Selected Studies from Vetus Testamentum* (Leiden: Brill, 2000), 45.

에돔 신탁은 문학적으로 그리고 구성사적으로 이방 국가 신탁의 중심에서 구상되어지고 있다. 아모스 1장 11절에서 “그의 형제에 대한 언급은 신명기 23장 8절의 배경 위에서 이해될 수 있다. 사실상 ‘형제 민족’(Brudervolk)이라는 사고는 창세기의 족장 이야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이르는 일관된 개념이다. 그러나 유다와 에돔에 대한 관계는 압도적으로 적대적 관계이며 실제로 그것은 ‘에돔-이스라엘’ 관계와는 다른 역사적 상황을 대변하는 저술 내용이 될 수 있다.<sup>33)</sup> 이처럼 적대 관계에 대한 근거들이 에스겔 35장에서 발견되고 있다(겔 35:2, 3, 7, 15).

우리는 여기서 오경 비평의 적용들과는 다른 차원에서 야곱과 에돔의 관계를 언급하는 새로운 주제를 제안해 볼 수 있다. 그것은 ‘형제로서의 속성’이라는 주제 안에서 야곱-에돔의 언급은 신명기적인 계약신학의 범주에서 새롭게 고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먼저 이방 국가 신탁에서의 에돔과 병행하는 야곱의 분명한 언급은 아모스의 첫 번째와 두 번째 환상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 단락에서 야곱의 언급은 재앙 예고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이스라엘의 끝’이라는 주제(암 8:2). 흥미롭게도 레위기 26장 42절에서 야곱은 ‘약속’과 ‘희망’이라는 주제로 언급되고 있다. 야곱과의 약속을 기억하는 희망의 주제는 아모스 환상의 주제와는 다르다. 분명히 야곱에 대한 재앙 예고는 오직 아모스 환상에서만 등장한다. 예언자 아모스는 “야곱의 미약함”이라는 암시를 통하여 처음 두 환상 속에서 앞으로 다가올 재앙을 선포한다. 그러므로 지금 국가 종교의 신의 모습으로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야웨만이 역사를 움직이고 해결할 수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sup>34)</sup>

33) L. Peritt, "Sinai und Hereb", ders.(ed.), *Deuteronomium-Studien* (FAT 8; Tübingen: Mohr Siebeck, 1994), 41.

34) Ch. Gertz, "Die unbedingte Gerichtsankündigung des Amos", F. Sedlmeier(ed.), *Gottes Wege suchend. Beiträge zum Verständnis der Bibel und ihrer Botschaft* (Würzburg: Echter Verlag, 2003), 160.

여기서 아모스 환상들이 구성사적으로 전체 아모스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연구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 이와 함께 아모스 환상들이 아모스 3-6장과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내용상으로 아모스 3-6장은 지진의 주제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야곱”에 대한 언급은 제의 비판의 기능과 나란히 놓여 있다.<sup>35)</sup> 이 내용을 문학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A. 3:9-12 사마리아에 대한 선고

B. 3:13-15 죄(עֲוֹנוֹתָם, 프샤임)를 범한 야곱, 즉 이스라엘

A'. 4:1-3 사마리아에 대한 선고

B'. 4:4-13 죄(עֲוֹנוֹתָם, 프샤임)를 범한 이스라엘

B' 문단은 문학적으로 성장한 모습의 단계를 보여주고 있다. 문학적인 편집의 모습이 그래프에 의해서 조사되어졌는데, 그는 4장 4-5절과 12-13절은 창조 기사의 언어로 쓰였고, 이 부분은 벤엘과 길갈의 제의 상황과 관련을 맺고 있다고 비평했다. 이와 달리, 6-11 절의 재앙들은 계약 신학의 영역 위에서 신명기 28장과 레위기 26장에서 마지막을 구성하는 저주의 목록들에 속하여 있음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sup>36)</sup> 아모스 4장 4-13절에 있는 주요한 동사 파샤(פָּשָׂא)는 북왕국의 죄와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문학적 확장을 통하여 제의적인 문맥과 병행하는 야곱 전승과도 관련을 맺고 있다. 이 용어는 열방신탁에서 각 나라의 죄를 지적하는 용어와 일치한다.

35) J. Wöhrle, *윗글* (2006), 105.

36) S. Grätz, *Der strafende Wettergott. Erwägungen zur Traditionsgeschichte des Adad-Fluchs im Alten Orient und im Alten Testament* (BBB 114; Bodenheim: Philo Verlag, 1998), 247. 그는 여기서 창조신학적인 입장과 신명기시사의 계약신학적인 입장을 소개한다. 그의 의견에 따라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아이러니하게도 창조 이후 홍수로 멸망당하는 원역사(창 1-11장)의 흐름과 유사하다고 접근해 볼 수 있다.

또한 아모스의 구성사적 견지 위에서 예돔과 야곱의 관계는 아모스 8-9장 후반부에 다시 새로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재해석되고 있다. 아래(‘아모스 8-9장의 구성사적 이해’)에서 소개하겠지만, 아모스 9장 8 절의 ‘야곱의 집’과 12절의 ‘예돔의 남은 자’는 이러한 ‘형제애로서의 속성’이라는 주제의 연장선 위에서 재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본문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아모스 환상들이 새로운 문학적 형태를 지닌 징벌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징벌의 내용들은 국가 조약 본문들에서 언급되고 있는데, 특히 조약 파기 시 얻게 될 저주의 내용과 매우 흡사하다. 이러한 영역은 분명히 계약 신학의 영역과 어울린다.<sup>37)</sup> 아모스 4장에서 편찬자는 “야곱”의 언급을 다음과 같은 형식, 즉 “야곱+파샤(יַעֲקֹב)+애쉬(אֵשׁ)”를 통하여 계약 신학의 주제를 다루고 있음이 분명하다. 여기에 “조약 파기”(Vertragsbruch)라는 개념이 아모스 환상 본문들에서 ‘하나님의 후회’라는 전승과 함께 사용되었고, 이 모습은 포로기 이전 후기 시대를 반영한다.<sup>38)</sup> 그러나 결국 아모스 8장 7절 ‘야곱의 영광’으로도 더 이상 이스라엘은 생존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8장 14절 처럼,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북왕국의 상태가 되었다. 이런 점에서 9장 11절의 ‘다윗의 무너진 장막’은 이미 넘어진 다윗 왕권의 새로운 통치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지므로 새로운 시대를 기대 볼 수 있게 된다.

### 3) 아모스의 계약 신학 이해

이스라엘의 심판 내용은 고대 근동의 계약 파기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계약 신학의 입장 위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야곱 전승은 아모스

37) U. Rütterswörden, *윗글*, 96-97.

38) H. Spieckermann, "Konzeption und Vorgeschichte des Stellvertretungsgedankens im Alten Testament", ders. (ed.), *Gottes Liebe zu Israel* (FAT 33; Tübingen: Mohr Siebeck, 2001), 147-148.

3-6장 사이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모습으로 결국 4장에서 다루고 있듯이 계약 신학적 입장과 연결된다. 이 사고는 일반적으로 아모스 환상 가운데 첫 번째(7:1-3)와 두 번째(7:4-6)에서 나타나고 있다. 환상의 내용은 지극히 계약을 수행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저주의 내용으로 기록되고 있다. 이러한 야곱 전승이 아모스 전체를 이어주는 하나의 중요한 문학적 매개체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아모스 전체의 문학적 구조 문제<sup>39)</sup> 중심에 서 있는 아모스의 네 가지 환상(7:1-3; 7:4-6; 7:7-9; 8:1-3)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불가피성을 강조해 주고 있다.<sup>40)</sup> 이스라엘에 대한 징벌로서의 심판 선포는 언약신학적 관점인 ‘계약’(ברית)이라는 단어가 비록 나타나지 않지만<sup>41)</sup>, 이 환상 본문들에서 새로운 징벌에 대한 형태를 발견할 수 있다. 이미 그레쯔(S. Grätz)가 논증한 것처럼, 북서 셈어 지역에서 발견되는 징벌하는 신은 주체자로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무시당한 땅이나 자연 현상의 모습이 그 징벌의 주체로 나타난다.<sup>42)</sup> 이런 의미에서 아모스 환상들은 고대 근동, 특히 북서 셈어 지역에서 사용되는 조약 파기의 본문들에서 나타나는 징벌들의 문학적 표현들과 비교될 수 있다.

아모스 연구의 중요한 흐름 중 하나는 고대 근동의 조약 본문과의 유사성 문제다. 이미 볼프도 제기한 바 있는 아모스와 고대 근동의 문서들, 특히 아랍어로 기록된 스피르(Sefire) 비문은 이 연구를 위한 단

39) 최인기, "아모스서의 문학적 구조와 문학단위 분할의 문제", 『구약논단』 제7집 (1999), 69-90. 그는 아모스 7-9장이 아모스 전체의 부록으로 규정한다. 그의 규정이 옳다면, 아모스 환상 본문들에 나타난 계약 개념의 전통사적인(traditionskritisch) 견해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아모스 환상 본문들에 대한 계약 개념과의 연관성에 대하여 다음을 참고하라. U. Rütterswörden, 윗글, 85-99.

40) 아모스 9장의 환상보다는 본 논문에서 다루지 않기로 한다. 이 주제는 8장과 9장의 편집사적인 견해에 의하여 이차적인 아모스 본문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가장 최근의 연구로 다음을 참고하라. Choi, J.-W., 윗글, 241-248.

41) L. Perliitt, *Bundestheologie im Alten Testament* (WMANT 36; Neukirchen: Neukirchener Verlag, 1969), 135-139.

42) S. Grätz, 윗글, 167-168.

초 역할을 했다.<sup>43)</sup> 뤼터스베어텐은 언약(ברית)이라는 단어가 나타나지 않지만, 아모스 7-8장을 계약(Vertrag)을 소개하는 본문으로 논증했다.<sup>44)</sup> 여기서 나타나는 징벌의 문학적 표현은 계약 체결의 의미보다는 계약 파기의 모습으로 뚜렷이 등장한다. 펜샴(F. C. Fensham)이 지적한 것처럼, 이 본문은 앗시리아의 조약 본문과 비교되어질 수 있다.<sup>45)</sup> 또한 스피르 본문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sup>46)</sup> 이 두 조약 문서들에서 나타나는 징벌에 대한 보고들이 비록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분명한 계약파기의 전승을 수용하고 있다. 뤼터스베어텐의 논증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조약 본문과의 유사성을 정리해 볼 수 있다:<sup>47)</sup>

내용	아모스	북서 지역	북동 지역
먹어치우는 매뚜기	7:1f.	KAI 222 A 27	VTE §§ 47, 85; SAA II 2, VI,1
불	7:4	KAI 222 A 37	VTE § 89
다림줄	7:7f.		VTE § 65
애곡	8:3a	KAI 222 A 29	SAA II 2, VI,19
버려진 시체	8:3b		VTE §§ 41, 47, 56

우리는 이런 문학적 표현을 통해서 ‘행위-결과의 관계(Tun-Ergebniszusammenhangs)가 아니라 고대 근동에서 유행하는 새로운 형태로 소개되는 징벌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이것은 계약 파기의 영역에서 관련을 맺고 있는 범죄에 대한 징벌의 유형이다. 이스라엘에 대한 징

43) H. W. Wolff, 윗글, 176.

44) U. Rüterswörden, 윗글, 96-98.

45) F. C. Fensham, "Common Trends in Curses of the Near Eastern Treaties and Inscriptions Compared with Maledictions of Amos and Isaiah", *Zeitschrift für die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75 (1963), 155-175.

46) U. Rüterswörden, 윗글, 96-98.

47) 윗글, 97-98.

별은 열방신탁 본문의 마지막에 위치한 이스라엘의 신탁 본문(2:6-8, 13-16)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계약 파기의 현실은 적어도 아모스 9장 11절의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라는 표현에서 찾을 수 있다. 이미 아모스의 최종 구성자는 다윗 왕국이 무너졌음을 전제로 하고 있고, 그러한 무너짐은 일차적으로 종교적인 악행이요 그 다음은 사회적 악행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계약 파기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통해서 그 결과를 보여주며, 이후 최종 구성자에 의해서 새롭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다윗계의 통치에 대한 기대감이 아모스 9장 후반부에서 소개되면서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예고한다.

#### 4) 아모스 8-9장의 구성사적 이해

아모스 8장 4절-9장 15절이 문학적으로 통일성을 이루는지에 대한 질문이 중요하며, 또한 1-2장에 나타난 열방신탁과 3-6장 그리고 아모스 환상 본문인 7-8장과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논증하는 것이 새로운 아모스 해석을 위한 중요한 부분이 된다. 그리고 이 본문의 신학적 관점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아모스의 마지막 편찬자의 의도뿐만 아니라 12 소예언서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위의 도표(암 8:4-14)와 함께 아모스의 결론부인 9장 1-6절은 구성사적으로 아모스 1장 1-2절과 연결된다. 이것은 하나의 문학적인 성장사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이후 9장 7절은 애굽에서의 인도함이라는 주제로 아모스 2장 10절과 3장 1절 후반부와 비교된다. 계속해서 9장 8-10절은 신명기사가적인 견지에서 예언의 의지를 수정한 형태로 소개하고 있다. 이 본문은 아모스 2장 11-12절과 7장 10-17절 그리고 8장 11-12절에서 다시 찾아 볼 수 있다. 9장 8절 후반부의 야곱에 대한 언급은 이차적으로 관찰되고 있지만, 11-15절과 연결된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된다. 9장 11-15절은 희망을 구원의 결과로서 표현하면서 끝나고 있다. 문학비평적 입장에서 8장 11-14절과 교차배열적으로 위

치해 있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이 두 본문은 내용뿐만 아니라 주제적으로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아모스 8장 11절-9장 15절을 다음과 같이 구성해 볼 수 있다:

본문	내용	주제 및 용어
A. 8:11-12	הנה ימים באים נאם ארני יהוה 보라 날이 이를지라. 주 아웨의 말씀이다	배고픔
B. 8:13-14	ביום ההוא 그 날에	קום. נפל. 무너지다, 일으키다
C. 9:1-4	환상과 법정	חרב. צוה. עיני יהוה 아웨의 눈, 명령, 칼
D. 9:5-6	영광송	
D'. 9:7	출애굽에 대한 질문	
C'. 9:8-10	숙아내는 법정	חרב. צוה. עיני יהוה 아웨의 눈, 명령, 칼
B'. 9:11-12	ביום ההוא 그 날에	קום. נפל. 무너지다, 일으키다
A'. 9:13-15	הנה ימים באים נאם ארני יהוה 보라 날이 이를지라. 주 아웨의 말씀이다	열매 맺음

이러한 구조는 앞에서 소개했듯이, 아모스 8장 4-14절의 적어도 아모스 8장 11절 이후의 아모스 최종 구성자보다도 앞선 본문이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이 구성은 아모스의 마지막 본문(8:11-9:15)과 연결되어 아모스의 최종 구성자의 시대적 상황에 따라 재해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모습은 아모스가 12 소예언서의 최종 편집과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최근의 연구 상황과도 그 의미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9장 11절의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라는 저자의 시점과 사고가 의미하는 것이 단순히 아모스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12 소예언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모스 9장 11-12b절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은 ‘다윗의 약속’이

라는 주제와 연결되는데, 적어도 이 본문은 미가 4장 8절과 5장 1-3절, 그리고 스가랴 9장 9-10절의 사고와 비교될 수 있다.<sup>48)</sup> 무너진 다윗이 장막이 새롭게 건설되는 장면은 사무엘상 16장 1-5절과 17장 12-16절에 나타난 내용처럼, 예루살렘을 근거지로 하는 미래의 통치를 암시한다. 여기서 사용되는 유사한 어휘의 사용은 분명히 다윗왕가의 왕권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 즉 아모스 9장 11절의 ‘다윗의 장막’(מִטְתַּת דָּוִד)은 열왕기상 12장 19절, 13장 2절, 14장 8절, 열왕기하 17장 21절, 이사야 22장 22절, 예레미야 21장 12절에서 소개하는 ‘다윗의 집’(בֵּית-דָּוִד), 그리고 이사야 16장 5절의 ‘다윗의 천막’(מִטְתַּת דָּוִד)으로 소개된다. 다윗의 왕권이 회복되는 시점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서 적어도 주전 5세기 경을 배경으로 하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사이의 대립적인 구도의 시대가 지나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시오니즘 시대에 대한 기대감이 아모스와 미가 그리고 스가랴서에서 소개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sup>49)</sup> 이러한 해석은 아모스 9장 8절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는 표현에서 ‘야곱의 집’이 적어도 새로운 다윗 왕권의 통치와 비교될 수 있고, 이러한 야곱 전승이 적어도 아모스 7-8장에 소개된 환상 본문에서의 ‘야곱’ 전승과 대조된다. 즉 9장의 ‘야곱의 집’은 북왕국뿐만 아니라 남유다를 포함한 전체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 4. 아모스 8-9장의 신학적 사고

위에서 살펴본 대로 아모스 8-9장은 적어도 8장 11절 이후 부분과 이하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아모스의 최종 구성에 따라 아모스 8장 11절-9장 15절은 아모스의 중요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다. 그러므로 그

48) J. Wöhrle, *율글*, 175-189.

49) J. Wöhrle, *율글*, 182-185.

시대를 유추할 수 있는 중요한 신학적 사고는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a) 먼저 아모스 9장 8a절의 말씀은 신명기사가적 개념으로 열왕기상 15장 34절(“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머물렀더라”)을 반영하고 있다.

b) 8b절은 열왕기상 13장 34절과 신명기 6장 15절과 비교해 볼 수 있다:

왕상 13:34	(...)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신 6:15	너를 땅 위에서 멸절시키실까

‘끊어지다’와 ‘멸절하다’는 동일한 히브리어 샤마드(שמד)의 히필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세 본문은 분명히 같은 신명기사가의 신학적 사고 위에서 해석되고 있음은 분명하다.

c) 아모스 9장 13a절은 레위기 26장 5절과 비교될 수 있다:

암 9:13a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레 26:5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레위기 26장 5절은 신명기사가의 신학적 사고 위에서 계약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특히 로핑크(N. Lohfink)는 레위기 26장 3-13절이 신명기적 사고(D)와 제사장적 사고(P)사이에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sup>50)</sup>

내용상 레위기 26장 5절은 에스겔 34장 25-31절과 비교해 볼 수 있

50) N. Lohfink, "Die Abänderung der Theologie des priesterlichen Geschichtswerks im Segen des Heiligkeitsgesetzes, Zu Lev 26,9,11-13", H. Gese, H. P. Rüger (eds.), *Wort und Geschichte. FS K. Elliger* (AOAT 18, Kevelaer/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73), 135.

다. 에스겔 34장의 본문은 포로기 시대를 반영하고 있다. 특히 에스겔 34장 2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과중한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특히 아모스 9장 13a절은 에스겔서의 신학적 이해를 전제하고 있으며, 레위기에 반영되어 있는 약속의 주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레위기의 본문은 그 시대적 배경이 분명 포로기 이후의 것으로 판명된다.<sup>51)</sup>

그것은 아모스 9장 13a절이 적어도 포로기 이후의 신명기사가와 제사장적 전통을 통합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본문이 되기 때문이다. 그것은 아모스서의 후반부가 적어도 아모스 본문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12 소예언서의 견지 위에서 해석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d) 아모스 9장 13b절은 요엘서 4장 18절과 비교된다:

암 9:13b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욘 4:18	그 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이 본문들에 의하면, 자연의 이미지를 통하여 표현된 약속은 농부의 삶을 최소화시키므로 저주의 마지막을 발견하도록 도와주고 있다. 이러한 사고는 유토피아적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데,<sup>52)</sup> 적어도 이 두 본문은 서로 매우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음이 분명하다.

e) 아모스 9장 14절은 아모스 5장 11절과 신명기 28장 30절과 39절에서 유사한 개념을 찾아 볼 수 있다:

51) 참고. 최중원, “레위기 26장 14-33절에 나타난 숫자 칠의 의미에 대한 연구”, 『구약논단』 제19권 1호 (2013년 3월), 12-42.

52) J. Wöhrle, 윗글 (2008), 271.

암 9:14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암 5:11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밀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신 28:30	.....포도원을 심었으나 네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신 28:39	네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으므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위에서 소개되고 있는 아모스 9장 13-15절은 바로 벨하우젠이 말하고 있는 “피와 철 대신에 장미와 라벤더 향”(Rosen und Lavendel statt Blut und Eisen)이라는 해석 위에서 재현되고 있다.<sup>53)</sup>

이러한 의미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기에서의 해방을 경험하고 있고, 더 이상 전쟁이 아니라 약속을 통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계약 전통 위에서 살아가기 때문이다. 이러한 계약 전통 위에서 이 본문은 하나님의 축복과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다. 포로기 이후 신명기사가의 계약 전통을 이어받은 이 본문은 여전히 다윗 왕국의 재현이 아니라 새로운 이스라엘 왕국의 사고를 반영하는 본문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이 본문에서 반영되고 있는 계약적 전통은 복서 셈어의 조약 전통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다. 분명히 이 전통의 구조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축복과 저주’의 본문은 복서 셈어적 전통에 그 기반을 두고 있고 아모스서의 마지막 편찬자는 새로운 시대에 대한 희망의 모습으로 다윗 왕조를 극복하는 새로운 희망 공동체를 기대하면서 예언하고 있다. 여기서 포도원에 대한 회복은 신명기사가의 계약적 전통에 따르고 있는 주요한 근거가 되고 있음은 분명하다.

f) 아모스 9장 15절은 열왕기상 14장 15절과 비교될 수 있다:

53) J. Wellhausen, 윗글, 96.

암 9:15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왕상 14:15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 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흠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 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아모스 9장 15절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15절을 근거로 하고 있다. 신명기적 사고를 반영하고 있는 이 본문은 포로기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아모스 9장 15절은 포로기 상황의 기간이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sup>54)</sup>

결론적으로 아모스 9장 13-15절은 레위기 26장 5절과 요엘서 4장 18절과 분명히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이러한 사고는 오경의 형성과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의 형성과정도 중요한 신학적 맥락을 함께 하고 있다. 결국 요엘서와 아모스서가 나란히 병행되어 12 소예언서에 위치해 있는 것은 새롭게 신명기적 사고(D)와 제사장적 사고(P)를 병합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엘리트들에 의해서 새로운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고자 선포하는 희망의 메시지로 소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로핑크의 의견처럼, 레위기의 사고가 아모스의 마지막 본문에서 나타나는 것은 적어도 제사장적 사고를 수용한 신명기사가의 신학적 이해가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sup>55)</sup>

구성사적으로 8장 11절 이후의 본문이 아모스 환상과 함께 연속되어

54) 사회사적 연구 비평으로 이 본문의 내용을 포로기 시대로 규정하는 우택주(『새로운 예언서 연구』)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마지막 신탁(9:11-15)은 587년 예루살렘의 멸망을 전제로 하여 포로로 잡힌 공동체에게 새로운 공동체로 회복되리라는 희망과 구원 메시지를 아모스의 확실한 권위로 선포된다. 유례없는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번영을 구가하던 여로보암 2세의 평화 시대, 사회는 오히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그 어느 때보다 극대화되었다. 근본 원인은 국가가 추진하는 명령경제(command economy)체제 때문이었다.”(185) 이러한 우택주의 비평은 분명 의미 있지만, 그는 여전히 포로기 이전의 모습과 포로기의 두 시대적 연결고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여전히 전통적인 예언서 연구의 입장을 받아들이면서, 12 소예언서 위치에서 아모스의 역할을 전혀 묻지 않고 있다.

55) N. Lohfink, *유태*, 129-136.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암모스의 최종 형성사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이에 암모스 마지막 구성자는 야곱에게 주어진 저주의 상황이 새로운 계약 백성으로 나타난 이스라엘 민족에게 새 시대 새 약속으로 주어진 아름다운 라벤더 향기로 퍼져나가길 희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것이 암모스 2장 4절 이하에 반영된 유다에 대한 저주가 소개된 이유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이 본문은 계약과 함께 ‘토라’(암 2:4)의 위배에 대한 경고로 주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암모스 8장 11절 이후 본문에서, 근본적으로 신명기사가적 사고 위에서 선포되고 있는 이 예언의 내용은 이후 저주의 모습으로 결정되어 나타나고 나아가 포로기 이후 적어도 주전 4세기 경에 새롭게 다윗 왕가의 통치사상과 결속되어 나타나는 새 이스라엘로 선포되고 있다.

## 5. 나가기

암모스 연구는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사회 속에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 19세기 중엽에 벨하우젠은 ‘피와 철 대신에 장미와 라벤더 향’이라는 독특한 사고를 통하여 전쟁의 시대가 지나고 이상적인 평화와 행복의 시대가 올 것이라는 암모스의 입장을 전해 주었다. 이 마지막 본문은 이스라엘이 새롭게 건설되기 위해서 계약적 사고를 다시 정립하고 하나님과의 계약을 새롭게 인식하므로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이러한 희망은 제사장적 사고를 수용한 신명기사가의 시대적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희망은 암모스 8-9장을 통하여 새롭게 정리될 수 있었다. 이 본문의 후반부에서 야곱의 전승은 심판이 아닌 적어도 희망을 바라보고 있다. 본문의 내용과 주제들을 통해서 문학비평과 함께 구성사적 비평을 통해서 암모스 8장 11절 이하부터 9장까지 거대한 교차배열구조로 구성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여기서 암모스의 전통이 제사장적

전통이 아닌 오히려 포로기 이후를 가리키는 신명기사가적인 신학적 주제를 언급하고 있음을 새롭게 발견해 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아모스의 전체적인 구조 안에서 벨하우젠의 입장을 새롭게 정리하며, 또한 극복하고자 노력했다. 이러한 관점은 구성사적 비평을 통해서 아모스의 마지막 편찬자 또는 구성자의 본문을 포로기 이후 제사장적 사고를 수용한 신명기사가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아모스 연구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 6. 참고문헌

- 이희학, “북왕국 멸망의 사회적 원인들과 예언자 아모스의 심판 선포”, 「구약논단」 제14권 2호 (2008년 6월), 29-48.
- 우택주, 「새로운 예언서 개론」 (대전: 침례신학대학교 출판부, 2009).
- 최인기, “아모스서의 문학적 구조와 문학단위 분할의 문제”, 「구약논단」 제7집 (1999), 69-90.
- 최종원, “레위기 26장 14-33절에 나타난 숫자 칠의 의미에 대한 연구”, 「구약논단」 제19권 1호 (2013년 3월), 12-42.
- 한규승, “‘토라의 공공성’의 관점에서 다시보는 아모스 선지자의 공동담론: 아모스 2장 6-7절의 재해석”, 「구약논단」 제22권 1호 (2016년 3월), 62-101.
- Bruegemann, W., “Amos’ Intercessory Formula”, D. E. Orton(ed.), *Prophecy in the Hebrew Bible. Selected Studies from Vetus Testamentum* (Leiden: Brill 2000), 41-55.
- Choi, J.-W., *Zur Bedeutung der Zahl Sieben. Eine literar- und kompositionskritische Studie zu den Vorstellungen von Fluch und Strafe im Alten Orient und im Alten Testament* (KAANT 11; Kamen: Hartmut Spenner, 2011).

- Clifford, H., “Amos in Wellhausen’s Prolegomena”, ders., *Aspects of Amos. Exegesis and Interpretation* (LHB/OTS 536; New York: T&T Clark, 2011), 141-156.
- Gertz, J. Ch., “Die unbedingte Gerichtsankündigung des Amos”, F. Sedlmeier(ed.), *Gottes Wege suchend. Beiträge zum Verständnis der Bibel und ihrer Botschaft* (Würzburg: Echter Verlag, 2003), 153-170.
- Grätz, S., *Der strafende Wettergott. Erwägungen zur Traditionsgeschichte des Adad-Fluchs im Alten Orient und im Alten Testament* (BBB 114; Bodenheim: Philo Verlag, 1998).
- Hadjiev, T. S., *The Composition and Redaction of the Book of Amos* (BZAW 393; Berlin/New York: Walter de Gruyter, 2009), 41-95.
- Jeremias, J., “Zur Entstehung der Völkersprüche im Amosbuch”, in: ders.(ed.), *Hosea und Amos. Studien zu den Anfängen des Dodekaprophetens* (FAT 13; Tübingen: Mohr Siebeck, 1996), 172-182.
- Jeremias, J., *Der Prophet Amos*, ATD 24/2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5).
- Lee, Young-Ho, *Einflüsse der Weisheit auf Worte der Propheten des 8. Jahrhunderts. -Amos und Jesaja-*, Dissertation in Uni, Bonn, 2005.
- Levin, C., “Das Amosbuch der Anawim”, ZThK 94 (1997), 267-290.
- Lohfink, N., “Die Abänderung der Theologie des priesterlichen Geschichtswerks im Segen des Heiligkeitgesetzes. Zu

- Lev 26,9.11-13”, H. Gese/H. P. Rüger (eds.), *Wort und Geschichte. FS K. Elliger* (AOAT 18; Kevelaer/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73), 129-136.
- Loretz, O., “Die Entstehung des Amos-Buches”, *UF* 24 (1992), 179-215.
- Koch, K., *Amos: Untersucht mit den Methoden einer strukturellen Formgeschichte*. (Teil 1), AOAT 30 (Neukirchen-Vluyn, 1976).
- Perlitt, L., “Sinai und Hereb”, in: ders., *Deuteronomium-Studien* (FAT 8; Tübingen: Mohr Siebeck, 1994), 39-49.
- Rottzoll, D. U., *Studien zur Redaktion und Komposition des Amosbuches* (BZAW 243; Berlin/New York, 1996).
- Rüterswörden, U., “Bundestheologie ohne ברית”, *ZAR* 4 (1998), 85-99.
- Schart, A., Die Entstehung des Zwölfprophetenbuches. Neubearbeitungen von Amos im Rahmen schriftübergreifender Redaktionsprozesse (BZAW 260; Berlin/New York: Walter de Gruyter, 1998).
- Schmidt, W. H., “Die deuteronomistische Redaktion des Amosbuches. Zu den theologischen Unterschieden zwischen den Propheten und seinen Sammlern”, *ZAW* 77 (1965), 168-193.
- Spieckermann, H., “Konzeption und Vorgeschichte des Stellvertretungsgedankens im Alten Testament”, ders. (ed.), *Gottes Liebe zu Israel* (FAT 33; Tübingen: Mohr Siebeck, 2001), 141-153.
- Thiel, W., Die deuteronomistische Redaktion von Jeremia 26-

- 45 (WMANT 52; Neukirchen-Vluyn:Neukirchener Verlag, 1981).
- Wellhausen, J., *Die kleinen Propheten* (Berlin: Verlag J. Gutten- tag, 1963).
- Wellhausen, J., *Geschichte Israels: In zwei Bänden. Erster Band* (Berlin: G. Reimer, 1878).
- Wöhrle, J., *Die frühen Sammlungen des Zwölfprophetenbuches. Entstehung und Komposition* (BZAW 360; Berlin/New York: Walter de Gruyter, 2006).
- Wöhrle, J., *Der Abschluss des Zwölfprophetenbuches. Buchübergreifende Redaktionsprozesse in den späten Sammlungen* (BZAW 389; Berlin/New York: Walter de Gruyter, 2008).
- Wolff, H. W., *Dodekapropheten 2: Joel und Amos* (BKAT XIV/2; Neukirchen-Vluyn, 1985).
- Zenger, E., “Das Zwölfprophetenbuch”, in: ders.(ed.), *Einleitung in das Alte Testament* (Stuttgart: Kohlhammer, 2008).

검색어

구성사적 비평방법

아모스

심판과 희망

장미와 라벤더 향

계약

## A Study on the hopeful oracle in Amos 8-9

Jong-Won Choi

Lecturer at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Bonn University, Dr. theol.

This study aims to show through a compositions approach that Amos 8-9 plays a role as the key to understand the book of Amos as a whole. So far, studies on Amos are limited only to those on its individual units. Amos 8-9 forms a well-organized entity in its literary composition, and the underlying theological thoughts are based on the treaty traditions of the ancient Near East. Around the theological thoughts, the text provides important clues to the formation of the entire book of Amos.

The final form of the text helps us to identify the entire fabric of Amos through a compositions approach, along with literary criticism on Amos 8-9. The last formation of Amos was done by a compositor

www.kci.go.kr

of Amos 8-9, which is believed to have some deuteronomic traces. As Julius Welhausen discovered, Amos 8-9 can be traced to have post-deuteronomic characteristics, and Amos's hope can be a clue to show the features of the post-deuteronomic theology. Amos 8-9 highlights Amos 9:5-7 in its structure, and each theme is clearly identified symmetrically in its chiasmic structure.

Finally, this study on Amos 8-9 stresses that the book of Amos took the deuteronomic treaty tradition, and that the cause of the national disaster of Israel lies in the destruction of the contract with God. This position shows Amos is significant in that it reflects Israel's theological thoughts of the post-deuteronomic age in relation to the texts of all the other minor prophets, and thus we can expect new research activities in the future on the relations between the treaty tradition of the 12 minor prophets and that of the Pentateuch.

## Keywords

compositions approach

Amos

judgment and hope

roses and lavenders

treaty

- 투고일: 2017년 9월 30일
- 심사일: 2017년 11월 16일
- 게재 확정일: 2017년 11월 16일

[www.kci.go.kr](http://www.kci.go.kr)